

산업안전공단, 충북서 유해화학물질 특별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충북지도원은 7월25일 충북지도원 교육장에서 관내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특별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유기용제 중독(급성중독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06년 4월 경북 칠곡군 소재 전자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TCE(Trichloroethylene) 누출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2006년 5월에는 부산의 인조피혁 제조사업장에서 DMF(Dimethyl Formamide)를 취급하던 근로자가 간독성에 의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무료로 준비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의 발생경향과 원인, 화학물질 중독 방지대책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7월25일은 충북지도원 교육장에서, 7월26일은 충주시 주덕읍 외국인취업센터 교육장에서 원거리 사업장의 편의제고를 위해 2원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07/25>